

## 담양 죽제품 연구

조 숙 경<sup>†</sup>

서일대학교 생활가구디자인학과

### A Study on Bamboo Products in Damyang

Sook-Kyung Cho<sup>†</sup>

Department of Living Furniture Design, Seoil University, Seoul 131-702, Korea

**Abstract:** This paper or article is about bamboo products from Damyang that have been degenerated by the threat of Chinese low-cost products. Comparing the products from Damyang and China, we could point out four problems and come up with solutions. Firstly, we need strong and specific storytelling based on historical facts and various research to boost the bamboo industry. In order to introduce interesting storytelling to the public, it is also necessary to train some good-quality workers. The public would be more familiar with the bamboo products from Damyang than Chinese products. Secondly, technologies used for bamboo products from Damyang are extremely behind the times. Skill shortages for bamboo products caused to create unattractive products to the public for approximately 30 years. Thus, we need to acquire advanced technologies from abroad as well as to develop our own. Thirdly, Even though attractive bamboo products would be produced with advanced technologies, workers in bamboo industry lack knowledge of distribution channels and marketing strategy so that there is no way to introduce their products effectively to the consumers. Therefore, government agencies or marketers should educate workers to help running their business successfully. Finally, bamboo products have been fashion and living items for some specific consumers for the last years. However, we need to create variously new types of bamboo products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a wide range of artists to be widely appealing.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the problems and solutions above. The 17th Bamboo Expo in Damyang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introduce Korean bamboo products in worldwide and develop the bamboo industry.

**Keywords:** Damyang, Bamboo products, Furniture, Craft, Design, China

## 1. 서 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에는 4속에 14여 종의 대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왕대속만 대나무라 부른다. 대나무는 통

나무로 있을 경우에는 단단하여 잘 구부러지지 않지만 결대로 쪼개진 대나무는 목재에 비해 탄력성이 풍부하여 잘 구부러진다. 또한 속이 비어 있으며, 세로 방향으로 얇게 쪼갤 수 있어 대살로 바구니나 가방 같이 엮어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적층한 대나무는 건축재나 가구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대나무의 성장은 3개월에서 길게는 3년이면

2015년 3월 13일 접수; 2015년 4월 13일 수정; 2015년 4월 13일 게재확정

<sup>†</sup> 교신저자 : 조 숙 경 (kassel95@seoil.ac.kr)

다 자라기 때문에 재료수급 측면에서는 경제적이거나 제작방법이 수공예 성격을 띠어 인건비가 비싼 국내에서는 제작이 용이하지 못하다.

전라남도 담양은 전국 대나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로부터 죽세공예가 유명하다. 군민의 84.2%가 담양의 대표 상징물이 '대나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2011년 원지코리아컨설팅의 조사에 따르면 담양의 관광지 중 대나무 숲 '죽녹원'에 11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친환경, 힐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나무는 매년 개최되는 담양대나무축제로서 볼 수 있으며, 17회를 맞는 2015년에는 세계대나무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것은 대나무 관련하여 국내최초로 이루어지는 세계박람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그동안 대나무로 만든 죽제품에 관련한 연구 논문 및 학술대회활동이 미흡하고, 생활죽제품이나 죽제품문화상품의 디자인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박람회가 일회성 축제로 끝나지 않고 담양의 대나무산업이 활성화되며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여 지는 가시적인 효과에 치중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대나무산업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연구부분에도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저가 죽제품으로 설자리를 잃은 담양 죽제품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담양 대나무산업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내용으로는 담양의 대나무가 유명하게 된 역사를 살펴보고, 담양에서 생산되는 죽제품과 외국에서 생산되는 죽제품을 조사하여 비교한다. 또한 죽제품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무형문화재를 살펴봄과 동시에 담양의 대나무관련 사업의 침체 원인을 찾아본다.

연구방법으로는 대나무관련 전문서적과 논문을 조사하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국외의 죽제품을 조사한다. 2014년 담양대나무축제와 대나무박

물관을 방문하여 담양죽제품 현황을 파악하고 죽제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의 인터뷰를 통하여 담양대나무관련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 2. 담양 죽제품의 역사적 고찰

### 2.1. 담양 대나무의 유래 및 특징

대나무는 주로 열대지방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며, 국내에는 강원도 강릉, 경상도 산청과 사천, 전라남도 구례와 담양 등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담양의 대는 삼국시대전의 역사와 같이 자생 분포되어 왔으며, 담양에서 죽세공예가 시작된 것은 조선시대로 추정된다(한국대나무박물관 2004). 또한 고려사 권122 열전 35 백선연(白善淵)조에 의하면 “서리 진득문(秦得文)이 두 사람 섬기기를 마치 노예 같이 하여 보성판관에 제수 되더니 죽제품인 책상과 상자를 만들어 받쳤다. 왕이 기뻐하며 그를 불러 내시를 삼았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담양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려시대에도 대나무제품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나무는 일반적으로 해충에 의한 피해나 병원균에 의한 감염이 거의 없어 살충제 없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며, 천연항균성과 탈취성을 지녀 미생물과 태양에 의해 토양에서 100% 생분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공기 중의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에 대한 강한 흡착력과 냄새 제거 기능도 있다(왕 2012).

담양의 대나무는 열대지방에서 빨리 자라는 중국 것에 비하여 직경이 작으나, 4계절이 뚜렷하여 대나무가 조밀하고 단단하며, 색이 진하고 아름답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다른 지방보다 채상장, 낙죽장, 참빗장, 죽렴장이 유명하며, 과거 각종 생활용구를 비롯하여 채상, 발, 낙죽, 참빗이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 담양의 죽제품 중 비교적 오래된 것은 물레, 바늘상자, 화로, 편지꽂이, 갈퀴, 대문, 고기구덕, 삼태기, 발 등이 있다. 1919년에는 참빗조합이 창설되었고, 26년에 산업조합이 결성되었으며, 30년대를 전후하여 대량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하였다. 40년대 이후부터는 영세농민들의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상품으로 제작에 활기를 띠면

서 47년에 처음으로 미국박람회출품하였으며, 54년엔 시카고 국제박람회, 64년에는 뉴욕 엑스포에 출품되는 등 5개국에 수출하였다(한국대나무박물관 2004). 이러한 담양의 죽제품 산업은 6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어 70년대에 호황기를 맞으며, 8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 2.2 담양 죽제품관련 무형문화재 현황

담양의 죽제품관련 무형문화재는 총 5건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과 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분류되며, 국가지정은 담양 채상장 1건이며, 도지정은 4건이다.

### 2.2.1 담양 채상(彩箱)장

채상이란 대나무를 얇고 가늘게 쪼갠 후 염색한 대살로 만든 상자를 말하며, 종류에는 대자·기스름·보통·피자·태옹 등과 삼합, 오합, 칠합 등이 있다. 채상의 염색재료는 식물성과 화학재료로 구분되는데, 식물성의 경우 빨강색은 잇꽃, 노랑색은 치자열매, 남색은 쪽, 검정색은 서리자를 원료로 한다(이 1980).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채상을 보고 ‘무늬와 촉감이 비단을 바른 듯 고운 것’(한국박물관연구회 2005)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채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알 수 있다. 채상은 혼례 시 혼수품을 담거나 여인들이 바느질관련 도구를 담아두었으며, 또한 임금의 승하(昇遐) 시 서울로 봉물(封物)을 담아 보내는 데에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채상의 기능보유자는 서한규(1930년생)로 현재 84세이며, 기능보유자였던 김동연 옹으로부터 전수받았다.

### 2.2.2 낙죽(烙竹)

낙죽이란 인두를 불에 달구어 대나무의 표면을 지져서 글씨나 그림, 문양 등을 꾸미는 죽세공예의 기법으로 담양지역에서 주로 성행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기능 보유자 낙죽장 이동연(李同連)이 1969년에 지정된 데 이어 1987년에 국양문(鞠良文, 1914~1998)이 지정되었으며, 국양문이 세상을 떠난 뒤엔 김기찬이 2000년에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도지정 기능보유자인 이형진(1956년생)은 현재 60세로 16세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이동연

(1911-1984)으로부터 기능을 전수받았으며, 또 다른 기능전수자로는 조운창이 있다.

### 2.2.3 선자장(扇子匠)

17세기 초에 담양에는 중앙(工曹)에서 파견된 부채를 만드는 기능을 보유한 장인인 선자장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근 고을의 장인들을 모아 편죽(片竹)을 다듬어 공조에 올려 보내는 역할을 책임지는 도회관(都會官)이었다. 담양의 편죽으로 공조에서는 부채를 만들었으며, 18세기 중엽의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담양산 부채가 상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최남선이 지은<고사통(故事通)>에는 ‘중국 부채는 단선(둥근 부채)뿐인데 북송 때 고려로부터 접선(접는 부채)이 들어와 중국에서도 그것을 모방하여 나름대로 만들어 접부채가 일반화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한국박물관연구회 2005). 일제강점기인 1937년 통계로는 담양에서는 절부채 129만 자루, 둥근 부채 1만 자루 등 총 130만 자루의 부채를 생산하여 전주지역의 생산을 능가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197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제작되었으며, 접부채(절부채)는 담양읍 완동마을이 주축이 되어, 1년에 50만 자루를 생산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접선의 기능보유자인 김대석(48년생)은 현재 67세로 담양에서 태어났으며, 누대에 걸쳐 부채 일을 해온 가업을 이어받았다. 나주선, 남평선, 통영선 등 우리나라 각지의 유명한 부채는 사라지고 없으며, 현재 담양의 접부채도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의 제품과 재료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부채제작의 수공기술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김대석은 재료의 선택, 가공기술, 제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을 계승하고 있으며, 담양 부채의 상징성 회복과 수공기술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여름선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명맥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는 무용선, 무선(무당선), 줄타기 부채, 한량무 부채 등 특수 목적의 부채 제작기능을 원형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 2.2.4 담양죽렴장(潭陽竹簾匠)

밭이란 갈대 또는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실로 엮어서 만든 가리개로 해를 가리거나 실내 장식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 분야의 기능보유자로는 박성춘(1938년생)이 있다. 대밭의 종류는 쪽밭, 가마밭, 걸세럼(죽피럼), 속세럼(내죽럼), 거북 등 6각 무늬(귀갑문)를 배열하는 보통귀문럼, 보통조각럼, 장조각럼, 족자밭, 김밭, 붓밭, 병풍밭 등이 있다. 대밭은 보통 2~3년생 분죽과 왕죽을 이용하고, 채취는 물기가 빠지는 10월 중순~1월 중순에 하는 것이 좋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발을 엮는 실은 명주실, 무명실이 좋으며, 공구로는 큰칼, 작은칼, 대통, 조럼(조름)띠, 조럼돌, 발목틀, 집계, 줄, 가위, 발틀 등이 필요하다.

2.2.5 참빗장

빗은 형태에 따라 빗살이 굵은 것을 ‘소(梳)’ 가는 것을 ‘비’라고 하며, 고대의 낙랑유적에서 목제 빗이 발견되었을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빗의 종류는 열레빗(월소), 참빗(진소), 면빗(면소) 등으로 나뉘며, 담양 참빗은 대소·밀소·씨울치·음양소·호소 따위가 있다. 재료는 담양 일대에서 생산되는 왕대를 사용하며 매기용 재료는 뿔때죽나무, 떡감나무 등이 사용된다. 대썩톱으로 자른 뒤 재작칼, 아시뱃등다리, 조름등다리, 피죽등다리, 전집 골판(장), 바닥골아시, 초벌글키 따위의 공구를 사용해 제작한다. 참빗장 기능보유자 고행주(1935년생)는 할아버지 고향진(1867~1936)이 일제강점기 때 빗조합의 진소계원으로 활동했으며 아버지 고제업(1901~1979)에 이어 기능을 전수하고 있다.

3. 담양 죽제품의 산업 현황

3.1. 담양 죽제품 산업 현황

국내 대나무제품의 수출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70년대이며, 92년에 죽세공예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은 111개였다(김 1994). 그러나 2009년에 담양의 대나무관련 사업체는 124개소로 나타났는데, 이는 죽세공예품을 포함해 술, 건강식품 및 용품 등 기타 대나무 관련 사업을 통틀어 집계된 것으로 수치로만 봐도 담양의 죽세공예산업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담양 죽세공예품 생산 종사자 및 가구 수의 현황을 나타낸 Fig. 1에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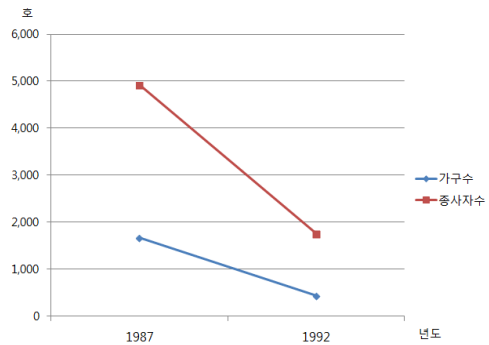


Fig. 1. The number of employees and furniture in Damyang bamboo craft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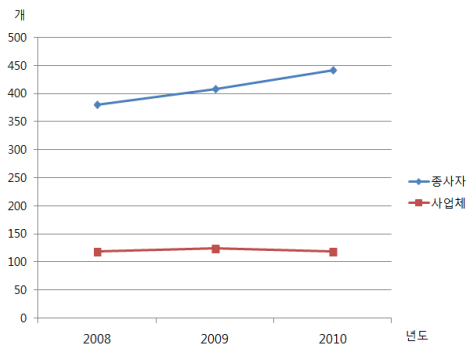


Fig. 2. Business related to Damyang bamboo & number of employee.

듯이 87년에 1,672호이던 가구 수가 5년 후에 439로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종사자 수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대나무 관련 사업체 수가 119개소로 2009년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8년과 동일한 수치로 큰 변화로 볼 수 없다 (Fig. 2). 2010년 담양의 죽제품 제조 및 판매업은 평균 58개소로 대나무관련 사업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9년 대나무관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평균 410명으로 담양의 전 종사자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담양군 2011). 이것은 중국 안길현의 대나무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수가 전체 1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격하게 적은 비중이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대나무관련 사업체의 연도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5개 감소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34명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담양군 2011).

**Table 1.** Current State of Bamboo Products Produced in Damyang (1825~2014)

번호	이미지	특징	번호	이미지	특징
1		죽부인 : 대나무를 쪼개어 일정한 규격으로 만든 후 엮음	8		가마문 발(1825) : 대나무를 일정하게 쪼갠 후 염색하여 엮음
2		차스푼 : 대나무를 사선으로 잘라 만들	9		장구통(1840) : 대나무를 일정하게 쪼갠 후 염색하여 엮음
3		부채 : 대나무를 쪼개어 부채살로 만들	10		대모자(1920) : 대나무를 일정하게 쪼갠 후 엮음
4		조명등 : 대나무를 쪼개어 울을 염색한 후 엮음	11		대화병(1950) : 대나무를 일정하게 쪼갠 후 엮음
5		활과 화살 : 대나무를 쪼개어 활을 만들고 화살은 작은 대나무통으로 만들	12		과일바구니(1972) : 대나무를 일정하게 쪼갠 후 울을 염색하여 엮음
6		돛자리 : 대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엮음	13		꽃장(1981) : 대나무를 일정한 규격으로 쪼개어 원하는 크기를 잘라 목재백골에 붙임
7		채상 : 대나무를 쪼개어 울을 염색한 후 무늬를 만들면서 엮음	14		다구(1998) : 대나무를 쪼개거나 통째로 활용하여 만들

3.2 담양 죽제품의 종류

담양의 죽제품에는 채상, 부채, 발, 빗, 죽부인, 활, 바구니, 돛자리 등이 있으며, Table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현대에 판매되는 제품이고, 8번에서 14번은 과거 시대별 죽제품 현황이다. 80년대에는 조선시대에 활발했던 백골에 대나무를 붙여 만드는 가구의 예가 종종 나타나나 현대에는 거의 없으며, 생활소품들의 형태나 기능 또는 기법 면에서 과거와 현대가 별 차이가 없다. 짜임 면에서는 현대보다 과거가 더 치밀하고 정교할 정도로 담양죽제품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국외 죽제품 현황

국외 죽제품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동남아시아와 현대디자인을 접목한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3.1. 중국의 죽제품

세계에는 70속 1,250여 종의 대나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39속 500여 종이 중국에서 자랄 정도로 풍부하다. 주로 장강(長江)유역, 화(華)남(南), 서(西)남(南)지방에 서식하며, 높이는 일반적으로 10~15 m이나 큰 것은 40 m가 넘는다. 호주 시안 길현은 중국의 대나무 10대 산지 중에 가장 유명

한 곳으로, 2009년 대나무관련 산업 총생산액이 115억 위안에 달했다. 대나무관련 산업에 종사자 수는 안길현 총 인구의 10%인 4만 5천명이다. 대나무는 지팽이풀과 같이 바이오 연료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에너지 풀과 유사한 성분이며, 진보된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에 사용될 잠재력 있는 공급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녹색기술정보포털에 의하면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연구자들이 중국의 대나무로부터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것이 휘발유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 및 경제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바이오 연료와 관련한 개방형학술지(Biotechnology for Biofuels)에 발표하였다. 중국 대나무는 바구니, 그릇, 소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은 물론 직경이 굵어 침대와 같은 대가구에도 사용되며, 집성판재로도 가공되어 실내장식이나 건축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 3.3.2. 스위스

코트라(KOTRA)의 2009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스위스 소비자들 사이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나무 제품 구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나무 걸레 및 일회용 휴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나무 제품이 위생적으로 알려져 있고 종이면서도 천 같은 느낌을 주어 먼지 및 더러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대나무가 활용되는 분야는 가구·마루바닥·건축자재·초 받침대·차(음료)·의류(타일류 포함)·정원용 등이며, 그중에서도 가구분야에서는 대나무가 침대·소파·장롱·책꽂이·옷장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대나무를 수입하여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스위스 대나무 장난감 및 교구생산의 대표적인 회사 하페(HaPe)의 워크샵 지원에서도 알 수 있다. 2013년 이스라엘 대학교수와 디자인과 학생이 2주간 중국 안길현에 체류하면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대나무 장난감(Fig. 3)을 디자인하고 제작한 것이다. 하페는 1995년 중국 닝보로 이주하였으며, 2005년에 유네스코와 합



Fig. 3. Hape workshop results (2013).

께 대나무를 활용한 완구생산라인을 구축하였다. 인체에 무해하고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대나무로 친환경 어린이 교구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도 수입되고 있다.





이외도 일본은 예로부터 뿌리가 견고하게 얽혀 퍼져나가는 대나무를 울타리나 집주변에 많이 심어 지진에 대비하였으며, 습한 기후 조건이 대나무가 성장하기에 알맞아 약 650여 종이 자생하고 있다. 1879년 에디슨은 일본의 대나무를 활용해 1,200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었으며, 1906년 텅스텐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장 2007).

Table 2와 같이 국외 죽제품을 살펴보면 일본, 싱가포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는 대나무로 만든 현대생활용품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단순한 반면에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은 전통기법 중심의 수공예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담양의 죽제품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동남아시아형이 아니라 선진국형의 디자인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3.4. 담양 죽제품 산업의 문제점

담양의 죽제품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양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총 456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대 대학생 228명과 30~50대 일반인 228명을 대상으로 ‘대나무’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5개를 쓰게 하여 나온 결과 두 세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Fig. 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20대는 판다가 143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1위부터 10위까지의 득표수가 급격한 하강

Table 2. Current State Out of the Country

번호	이미지	특징	번호	이미지	특징
1		-대나무 스피커 -대나무 통을 공명 통으로 사용 -일본	9		-자전거 -대나무 통과 줄기 사용 -인도네시아
2		-조형물 -대나무를 가느다란 줄로 쪼개어 사용 -일본	10		-자전거 -바퀴와 손잡이를 제외하고 대나무로 만들 -미국
3		-체중계 -대나무합판성형 대나무의 탄성을 이용 -일본	11		-자전거 -조립식 -싱가폴
4		-침대 -대나무 통을 엮음 -중국	12		-장난감 -대나무 판재에 채색하여 만들 -스위스
5		-스툴(stool) -대나무합판성형 대나무의 탄성을 이용 -중국	13		-그릇 -대나무 줄기를 층으로 붙여 만들 -베트남
6		-스툴(stool) -대나무줄기를 엮어 만들 -중국	14		-핸드백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염색하여 만들 -태국
7		-핸드폰케이스 -대나무집성목을 깎아서 만들 -중국	15		-악기 -대나무 통과 대나무를 쪼개어 만들 -필리핀
8		-필기구세트 -쪼갠 대나무와 대나무집성목으로 만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16		-노트북 -대나무 무늬목을 붙여 만들 -타이완

세를 보였다. 이것은 매체에 노출된 판다나 죽통밥 등 몇 개의 단어에 집중된 현상을 보인 반면에 일반인들은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1위를 한 죽순은 70표로 20대의 판다에 비

하여 절반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또한 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담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였는데, 20대는 17표를 얻었으나 일반인은 37표를 받아 두 배 정도 많았다. 순위는 20대가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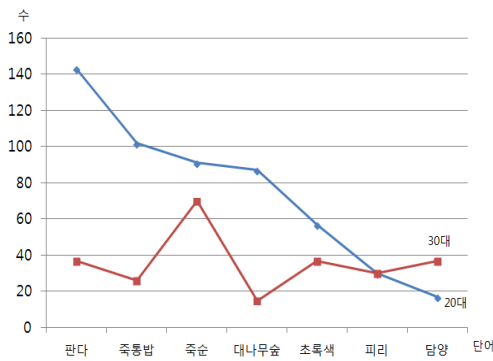


Fig. 4. The word research related to bamboo (20 and 50).

30~50대에선 6위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20대가 담양을 인지할 수 있는 제품이나, 홍보 등이 미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20대는 명사로 답한 경우가 많으나 일반인은 감성적인 형용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결과 담양 죽제품 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담양대나무에 대한 역사적·학문적 고찰 및 연구가 부족하다.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받침이 뿌리처럼 든든해야 하는데, 그러한 연구 및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점은 대외적인 홍보 시 어려움이 있으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이어가는데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둘째, 낙후된 기술이다. 70년대에 호황기를 맞았던 당시의 기술에서 진전된 것이 전무하다. 담양대나무의 특성을 살린 제작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개발이 어려워 돛자리나, 죽부인, 소쿠리, 등굣개 등의 싸고 하찮은 죽제품의 이미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셋째, 마케팅의 부재이다. 제품이 좋아도 홍보와 판로가 없으면 매출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것은 죽제품생산업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던 것이 아니라 담양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담양군은 죽제품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구산업이나 가전과 같이 산업규모가 큰 분야

와의 협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대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나무 완제품을 만들기 보다는 자전거의 표면을 대나무로 하는 것처럼 제품의 부분에 응용하는 형태로 간다면 일정 물량은 물론 대나무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도 기폭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저급한 디자인이다. 디자인 측면에서 앞서 있는 일본이나 선진국 그리고 풍부한 재료로 앞서가는 중국과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담양대나무의 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나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법 창출이 가능한 디자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

1994년에 발표된 김진열의 논문에는 담양 죽제품 공예품 산업의 문제점을 다음 4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는 기능공 부족이며, 둘째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수요 감소, 셋째는 인건비 상승이며, 넷째로 대나무의 부족 및 제작기법의 낙후이다. 여기서 기능공과 수요 감소 그리고 인건비 문제는 비단 담양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본 저자도 지적한 문제점으로 기술의 낙후성은 담양이 노력하지 않은 부분으로 관련종사자들의 성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담양의 죽제품을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알리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담양만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 4. 결 론

본 연구는 중국산 저가 죽제품의 위협에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담양 죽제품에 대한 연구이다. 담양의 대나무는 열대지방에서 빨리 자라는 중국 것에 비하여 직경이 작으나, 4계절이 뚜렷하여 대나무가 조밀하고 단단하며, 색이 진하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담양의 죽제품에는 채상, 부채, 발, 빗, 죽부인, 활, 바구니, 돛자리 등이 있으며, 이 지역의 죽제품관련 무형문화재는 총 5건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과 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국가지정은 담양 채상장 1건이며, 도 지정은 낙죽, 선자장, 담양죽렴장, 참빗장 등 4건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죽제품생산지인 담양은 다른



지역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도 자체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담양 죽제품 산업의 문제점은 4가지로 지적된다.

첫째로 담양 대나무에 대한 역사적·학문적 고찰 및 연구 부족이며, 둘째는 낙후된 기술, 셋째는 마케팅의 부재이고, 넷째는 저급한 디자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양 대나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 새로운 제작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디자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며, 국내뿐 만이 아니라 국외로의 진출을 위한 마케팅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대나무박람회는 국내 대나무 관련 첫 세계대회로 치러지는 만큼 일회성이 아닌 담양의 죽제품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사 사

이 논문은 2015년도 서일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지원받아 연구하였음.

## 참 고 문 헌

- 김진열. 1994. 담양지역 죽세공예품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5쪽.
- 담양군. 2011.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활용한 대나무관련 사업체현황분석보고. 6쪽.
- 왕효로. 2012. 친환경 대나무 소재를 활용한 제품분석 및 디자인 개발. 중아대학교 의류학과 패션디자인전공 석사논문. 6-30.
- 이광자. 1980. 채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논문. 20쪽.
- 장장년 외. 2007. 세계역사 숨겨진 비밀을 밝히다. 눈과 마음. 209쪽.
- 한국대나무박물관. 2004. 한국대나무박물관. 18-19.
- 한국박물관연구회. 2005. 한국의 박물관 5. 문예마당. 225, 236쪽.
- <http://terms.naver.com>.
- <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
-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